

韓-EU, 공급망·경제안보 등 포괄 ‘차세대 전략대화’ 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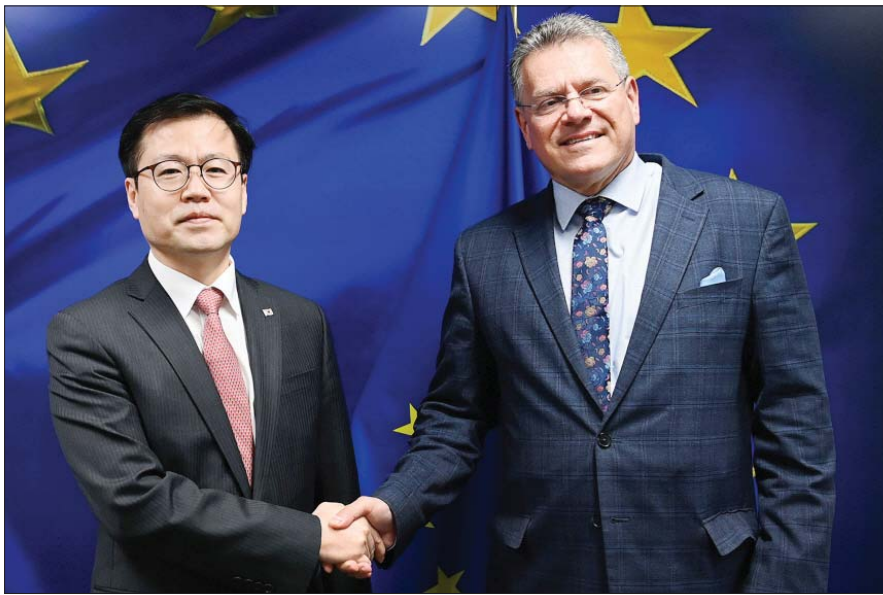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벨기에 방문, 고위급 인사 면담

불확실성 속 협력구조 재설계 한 뜻
기술패권 경쟁·위기에 공동대응

정부가 유럽연합(EU)과 디지털·공급망·경제안보를 포괄하는 새로운 고위급 협의체인 ‘한-EU 차세대 전략대화(Strategic Dialogue on trade, supply chains & technology)’를 신설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12월 1~3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경제안보 집행위원, 보리스 부드카 유럽의회 산업연구위원장 등과 면담하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고위급 회담에서 양측은 현재의 한-EU FTA 체제가 상품·서비스 교역 중심의 전통적 구조에 머물고 있어, 디지털·공급망·경제안보 등 급변하는 통상환경의 새로운 전략적 이슈를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인식을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마로시 셰프초비치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통상·경제안보 집행위원과 면담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산업부

같이 했다. 특히 미·중 패권 경쟁 심화와 신흥 안보 위협 등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 기존의 틀을 넘어 협력 구조를 전면적으로 재설계(Reshape)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양측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존 장관급 FTA 무역위를 확대·개편해 내

년 상반기 한-EU 차세대 전략대화를 출범하기로 약속했다.

새로 출범하는 전략대화는 경제안보, 공급망, 첨단 기술 이슈를 포괄하는 최상위 전략 협의체로, 단순한 무역 협의를 넘어 기술 패권 경쟁과 복합 위기에 공동 대응하는 핵심 컨트롤타워 역

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회담에서는 아울러 ▲EU의 신규 철강 수입규제(TRQ) ▲배터리 규정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체코 원전 역외보조금 조사(FSR) ▲한-EU 디지털통상협정(DTA) 서명 등 핵심 통상현안도 폭넓게 논의됐다.

EU가 내년 6월 철강 세이프가드 종료 이후 도입을 추진 중인 신규 수입규제와 관련해 우리측은 업계 우려를 전달하고 신규 조치가 도입되더라도 한국이 최우선 협상 대상국이 되어야하며, 한국산 철강 수출 물량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TRQ 적용 배제 또는 쿼터 확보 등 각별한 배려를 요청했다. 이에 EU측은 “한국을 우선 협상대상국으로 고려하고 있고, 한국 기업 피해를 줄이는 것을 고려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우리측이 EU의 배터리법 후속 이행규정의 조속한 확정, 타 EU 정책(음니버스 패키지 등)과의 정합성 고려, 에너지 집약 산업에 배터리 분야를 포함해 줄 것을 요청한데 대해 EU 측은 향후 한-EU 공동 생산 체계 구축의 필요

성을 언급하며 배터리 공급망 중심의 실질적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밖에도 내년 1월 시행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관련해 우리측이 배출량 산정 기준, 검증기관 요건 등 하위규정 발표 지연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지적하며 조속 확정을 요구하고, EU집행위가 한수원의 체코 원전사업 수주 관련 불법 보조금 수령 가능성을 문제 삼아 진행 중인 조사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심각한 우려를 전달하는 한편, EU 측의 신중하고 공정한 처리를 당부했다.

여 본부장은 “이번 브뤼셀 방문이 EU의 신규 철강 규제, CBAM, FSR 등 민감 현안에 대해 우리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고, 배터리·디지털·공급망·경제안보 등 미래 협력 의제를 구체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하고 “향후 EU와의 고위급·실무급 채널을 적극 활용해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자유롭고 공정한 통상환경과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장기지속형 의료용 대마 임상준비 순항”

인벤티지랩 ‘IVL5005’
의약품 후보물질 GLP 독성시험 완료
미국 FDA 희귀의약품 지정 준비중

약물전달 플랫폼 기업 인벤티지랩이 개발 중인 의료용 대마 장기지속형 주사제가 전임상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전임상 결과를 바탕으로 미국 식품의약국(FDA) 희귀의약품지정(ODD)을 준비하며, 임상 준비에 본격 나설 계획이다.

3일 인벤티지랩은 유한건강생활과 공동으로 진행 중인 의료용 대마 성분인 Cannabidiol(CBD) 기반 장기지속형 주사제 IVL5005의 개발이 계획된 일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일부 매체가 IVL5005의 전임상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보도한 데 따른 반박으로 풀이된다.

인벤티지랩에 따르면 IVL5005은 국내 최초로 CBD 기반 의약품 후보물질의 GLP 독성시험을 완료했으며, 현재 글로벌 파트너들과 임상 개발 전략을 협의 중이다.

미국 FDA에서 허가된 CBD 주성분

희귀질환 치료제 ‘에피디올렉스(Epidiolex)’는 소아 희귀 뇌전증(LGS, D S)을 적응증으로 하며 국내에서도 수입 의약품으로 사용되고 있다.

회사에 따르면 IVL5005의 FDA 희귀의약품 지정(ODD)을 준비하며, 글로벌 규제 전문 컨설턴트와 함께 FDA 사전 상담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FDA는 소아 대상 약물의 경우 1개월 이상 장기 지속형 주사제 형태는 편의성·안전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며, 현재 에피디올렉스 역시 매일 3회 이상 경구 투여 중인 점을 감안했을 때 1~2주 간격 투여만으로도 충분한 편의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또한 1세 유아에게 한 달 이상 지속되는 주사제를 투여하는 데 대한 임상 현상의 선호도 문제, 소아 대상 1개월 이상 장기 지속형 주사제 허가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도 FDA가 설명한 중요한 고려 사항이었다. 인벤티지랩은 FDA 의견을 반영해 1~2주 투여 간격의 개발 전략을 임상 계획에 적극 검토·반영하였으며, 규제기관의 평가 기준에 부합하도록 목표 제품 특성(TPP)을 재정비

해 개발 중이다.

인벤티지랩은 독자적으로 구축한 만성 뇌전증 동물 모델에서 IVL5005 단회 투여만으로도 3주 이상 우수한 항경련 효능을 확인했다. 회사는 이를 소아 희귀 뇌전증 치료제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안전성과 유효성의 균형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인벤티지랩의 미세유체 기반 장기지속형 주사제 플랫폼 IVL-드러그플루이드(DrugFluidic)는 약물 특성과 개발 목적에 따라 2주부터 6개월(동물의약품은 최대 12개월)까지 다양한 방출기간 설계가 가능한 기술이다. 회사는 이를 기반으로 IVL5005 및 다수 파이프라인의 글로벌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인벤티지랩은 “IVL5005 개발은 유한건강생활과의 협의 아래 계획된 일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라며 “앞으로도 FDA 및 글로벌 신약 개발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력해 파이프라인의 글로벌 개발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주주 여러분께는 과학적 근거와 규제 기준에 기반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3분기 GDP 1.3% ↑… 3년9개월 만에 최대

한은, 속도치 보다 0.1%p 더 성장
민간소비·설비투자·수출 상승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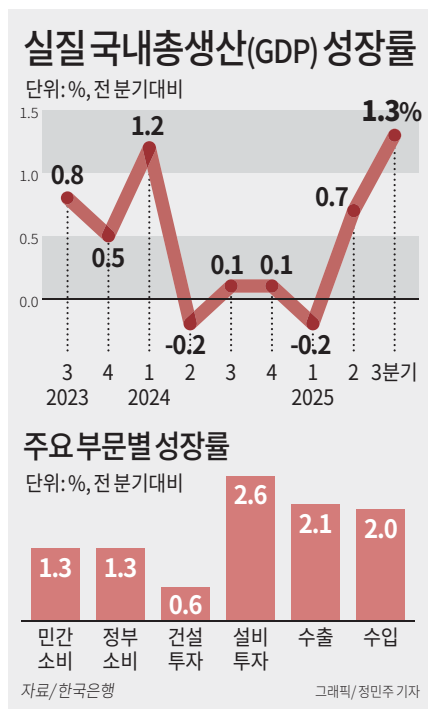
올해 3분기 우리 경제가 속도치보다 높은 1.3%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수출이 모두 늘고 제조업·서비스업이 동반 반등하면서 분기 성장률은 지난 2021년 4분기(1.6%) 이후 3년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다만 교역조건이 나빠지면서 실질 국민총소득(GNI) 증가율은 성장률에 못 미쳤다.

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3분기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대비 1.3% 성장했다. 11월 발표된 속도치(1.2%)보다 0.1%포인트(p) 상향된 것으로, 속도추계 때 반영하지 못했던 9월 실적치가 추가 반영되면서 건설투자·지식재산생산물투자·설비투자 등이 상향조정된 영향이다. 전년 동기와 비교한 성장률은 1.8%였다.

생산 측면에선 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이 모두 플러스를 기록했다. 제조업은 1.5% 늘어 반도체 등이 포함된 컴퓨터·전자·광학기기와 자동차 등 운송장비 생산이 성장을 이끌었다. 건설업은 토목 건설을 중심으로 0.7% 증가했다. 서비스업은 도소매·숙박음식, 운수, 금융·보험업 등이 고르게 늘며 1.4% 성장했다.

지출 측면에서도 내수와 수출이 함께 개선됐다. 민간소비는 승용차·통신기기 등 재화와 음식점·의료 등 서비스 소비가 모두 늘어 1.3% 증가했다. 정부소비도 물건비와 건강보험 급여비를 중심으로 1.3% 늘며 내수 회복을 거둬들었다.

투자 역시 개선 흐름을 보였다. 건설투자는 토목 부문을 중심으로 0.6% 증가해 4분기 연속 감소에서 벗어났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 기계



류 투자가 늘면서 2.6% 성장했다. 소프트웨어 등 지식재산생산물투자도 1.2% 증가해 플러스 기조를 이어갔다.

대외거래를 보면 수출은 반도체와 자동차가 견인해 2.1% 늘었다. 같은 기간 수입도 기계·장비,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2.0% 증가해 순수출이 성장에 소폭 기여했다. 실질 GDP의 전년동기대비 성장률(1.8%) 역시 수출 회복세가 뒷받침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소득 측면의 회복세는 상대적으로 제약을 받았다. 실질 GNI는 3분기 전기대비 0.8% 증가해 실질 GDP 성장률(1.3%)을 하회했다. 교역조건 악화로 실질무역손실이 -8조6000억원에서 -10조3000억원으로 확대된 데다, 실질 국외순수취요소소득도 10조2000억원에서 8조6000억원으로 줄어든 영향이다. 명목 GNI는 전기대비 0.3% 감소했고, 명목 GDP는 0.7% 증가했다.

저축과 투자 지표를 보면 3분기 총저축률은 34.4%로 전기(35.6%) 대비 1.2%p 하락했다.

/김주형 기자 gh471@

韓 유니콘 기업 13개, 세계 11위 그쳐

대한상의, 韓 스타트업 활력 약화
美 717개, 中 151개, 인도 64개 순서

한국의 유니콘 기업 수가 전 세계 11위 수준에 머무르면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폭발적으로 성장한 미국 등 주요국과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 후 유니콘에 오르기까지 걸리는 성장 속도 역시 세계 평균보다 뒤처지며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의 활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일 글로벌 벤처투자 시장조사기관 CB인사이트의 자료를 분석한 ‘글로벌 유니콘 기업 현황’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올해 10월 기준 전 세계 유니콘 기업은 총 1276개로 집계됐고 이 가운데 한국 기업은 13개로 전체 11위에 그쳤다. 미국이 717개(56.2%)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고 중국(151개), 인도(64개), 영국(56개), 독일(32개) 등이 뒤를 이었다.

코로나19 이후 4년간의 변화를 살펴보면 격차는 더욱 뚜렷했다. 같은 기간 미국은 229개의 신규 유니콘을 배출하며 전 세계 증가분의 70% 이상을 차지한 반면 한국은 불과 2개 증가하는데 그쳤다.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의 영향으로 중국이 19개 감소한 사례를 제외하면, 주요국 중 가장 저조한 성적이다.

/이승용 기자 lsy2665@